

경찰, '서면 수사 지휘' 범위 확대

경찰이 28일부터 '서면 수사 지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27일 "경찰 수사의 국민 신뢰 회복 확보를 목표로 조직 내부 수사 지휘의 책임성·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 수사 지휘 활성화 방안'을 28일부터 모든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면 수사 지휘는 관리자가 수사를 어떻게 지휘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문서로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방안은 올해 6~8월 경찰청 및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청 산하 43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를 통해 각 수사 지휘서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7% 증가한 2430건이 작성됐고, 해당 관서

수사 지휘 책임성·공정성 높이기 위한 조치 위치 추적·통화 내역 확인 지시도 서면으로 상·하급자 이전 발생시 수사 지휘 내용 기록

직원의 72%가 이 제도 전국 확대 시행에 찬성했다.

서면 수사 지휘 활성화 방안에는 기존 대상에 ▲범죄 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 수사 ▲수사 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점으로 경찰관이 서면 지휘 요청한 사안 등이 추가 포함됐다. 기존 대상은 ▲체포 및 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 등 핵심 수사관서 변경 등이었다.

이번 방안 시행에 따라 수사 부서 상급자가 범죄 인지 또는 통신 감청, 위치 추적, 통화 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상·하급자 사이에 이전이 발생해 하급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 지휘 내용을 의무적

으로 기록하게 해 수사 지휘 책임 소재를 더욱 분명히 했다.

경찰은 "온·오프라인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 수사 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꾸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런 노력으로 서면 수사 지휘가 현장에 뿌리를 내린다면 구두·전화 등 방식으로 이뤄지는 상급자의 부당·불투명한 지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상급자의 적법·정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행 의무를 확보해 경찰 수사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

美 탐험가 남극대륙 무지원 횡단 최초 성공

미국인 폴린 오브래디(33)가 28일(현지시간) 아무런 중간 지원을 받지 않고 바람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단독으로 남극 대륙을 횡단한 최초의 탐험가가 됐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오브래디는 남극 대륙의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9321일(약 1500km)을 지그재그로 이동했으며 마지막 77.54마일(약 125km)은 3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이동했다.

이 기록은 이미 이동한 다음 날 울트라마라톤을 한 셈이어서 이 기록을 깨는 사람이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NYT는 강조했다.

오브래디는 전화 인터뷰에서 "나도 모르겠다. 무언가가 나를 이끌었다. 마지막 32시간 동안 난 큰 흐름에 묶여 있었다. 음악도 듣지 않았고 끝날 때까지 간다는 생각뿐이었다. 심오하고 아름다웠으며 그렇게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다는 건 멋진 일이었다"고 말했다.

거의 두달이 걸린 여정에서 오브래디가 원 것은 반나절이 전부였다. 11월 29일 그는 스키가 고장나 캠프를 설치하고 수리하면서 휴식을 취했다. 오브래디는 극지 탐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 중 하나를 달성한 것이다.

남극점에 최초로 도달한 노르웨이 아문센과 영국의 스코트의 탐험과 비견되며 1996-97년에 남극대륙을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횡단한 노르웨이 아우슬란트의 업적도 능가한다. 아우슬란트는 당시 연을 이용했었다.

이후 연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극 횡단을 시도한 사람이 3명 이상 있었으며 오브래디가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됐다.

2016년 영국의 특수부대 출신 탐험가 헨리 위슬리가 900마일을 횡단하고 126마일을 남긴 지점에서 구출됐지만 며칠 뒤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다른 영국인 벤 손더스가 중도에 포기했고 28일 현재 다른 영국인 루이스 리드(49)가 횡단을 진행하고 있다.

오브래디와 리드는 이른바 론 아이스 헬프의 메스터 출발지에서 레베레트 빙하 끝의 로스 아이스 헬프까지 횡단을 경쟁하는 중이다.

첫주에는 리드가 앞섰으나 오브래디가 11월 9일 추월했고 계속 앞선 끝에 먼저 횡단을 마쳤다.

印尼,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주변 비행 금지

인도네시아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를 계속하면서 화산에 대한 경계 경보가 2번째로 높은 단계로까지 격상됐다고 영국 BBC가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화산 주변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편의 경로가 재조정됐으며 화산 주변 5km가 기피 지역으로 선포됐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국(BNPP)은 이날 화산 활동 증가에 따라 경보 단계를 2에서 3으로 높였으며 위험 지역도 반경 2km에서 반경 5km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로 인한 쓰나미로 지금까지 430명이 사망하고 약 150명이 실종됐다.

인도네시아 항공 당국은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편 25편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호주와 싱가포르, 중동 지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항공편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중부서 버스 협곡 추락 7명 사망

콜롬비아 중부 보야카 지방의 산 마테오마를 부근 도로에서 버스가 협곡으로 굴러 떨어져 최소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콜롬비아 교통경찰이 발표했다.

사망자 가운데에 포함된 운전사는 갑자기 버스 바퀴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이를 통제하지 못했고, 19명을 태운 차는 도로를 벗어나 협곡으로 추락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교통 당국은 사고 원인이 기계 결함이라고 말했지만 이 버스를 더 자세히 검사해볼 예정이라고 보야카 교통경찰대의 홀리안 알바레스 서장은 말했다. 1987년 모델의 이 버스는 정기 엔진검사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현지 경찰은 말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승객 중 3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4명은 병원 치료도중에 숨졌다.

트리나 경찰국장은 "자가용 버스인데도 불법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무버스처럼 승객들을 태우고 다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분 장터에 가던 농부들이나 부상자들은 산 마테오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뉴스

해넘이·해맞이 안전

사고 5년간 20명 사상

행안부, 각별한 주의 당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7일 연말 연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1월1일)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장에서 20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부상 18명)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로 발을 헛디뎠다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15명, 찰과상 3명이었다. 심정지도 2명이나 있었다.

겨울철에는 산과 바다의 패서운 바람과 기상변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 해넘이와 해맞이를 위해 산에 오를 때는 당일 날씨와 고고자 하는 산의 등반소요 시간, 등산로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한다.

동상을 예방하기 위한 장갑 모자 등 방한용품 반드시 챙겨간다. 이 때 눈길과 빙판에 대비한 아이젠도 잊지 않는다. 산에 오르기 전 준비운동으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 하산 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주로 어두운 새벽에 이동하는 해맞이 산행은 실족과 추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뜨기 직전에는 기온이 내려가 체온증에 걸리기 쉬우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차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인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비약을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해야 한다.

뉴스



한파가 만든 얼음산 강원 화천군 광덕산의 수문주가 영하 20.6도까지 떨어진 27일 화천을 북한강 상류편산 인공폭포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

2019 대학 정시모집, 29일부터 표준공통원서접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9일부터 표준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로 2019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원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자는 가입한 통합회원 아이디(ID)를 이용해 원서접수 대행사에 로그인 후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통원서는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정보, 출신학교 정보 등을 기입하고, 공통자기소개서는 지원할 대학이 요청하는 경우만 작성하면 된다.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 및 공통자기소개서는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재활용되며, 필요하면 수정해 제출 가능하다. 공통원서 및 공통자기소개서는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 원서접수 대행사에게 주고받을 수 있다. 지원할 대학을 선택한 후, 공통원서 함

목을 확인·수정하고 대학 지원사항과 사진 등 대학별 추가입력 사항을 작성하고 저장하면 된다. 입학전형료는 개별 또는 대행사별로 묶여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수시모집 기간에 작성했던 회원정보와 공통원서가 있다면 재활용할 수 있다. 사전에 회원 가입하지 않은 수험생은 미리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의 컴퓨터에서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앞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를 사전에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시기에 다급하게 작성하다가 실수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 중 장애 조기 발견, 자활치료, 영민 민력군